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2012. 3

이의섭

■ 서론	4
■ 중소 건설업체 해외 진출 현황	6
■ 중소기업 해외건설 지원 정책 현황 및 문제점	9
■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24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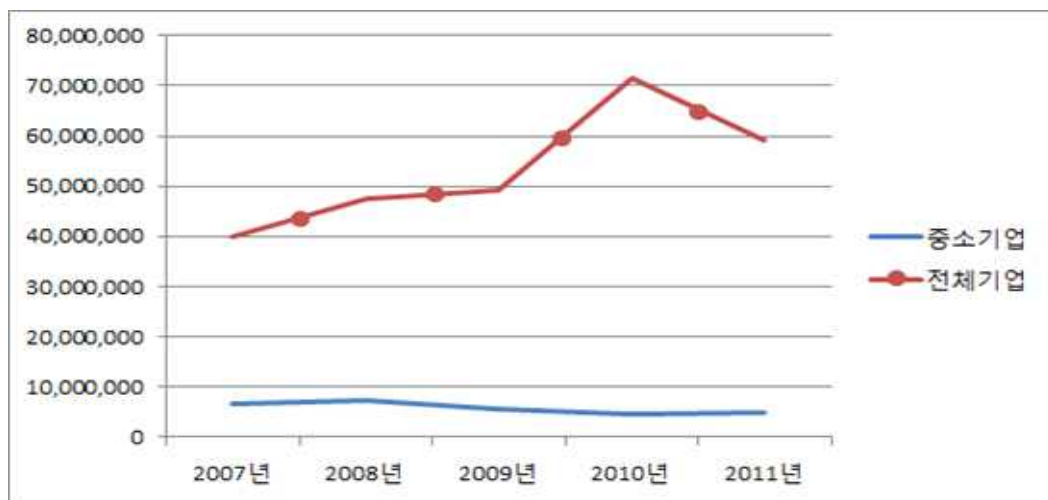
- ▶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중소 건설업체가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으로 인하여 여의치 않는 실정임.
- ▶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수주한 금액은 2007년 67억 달러, 2008년 72억 달러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09년 55억 달러, 2010년 47억 달러, 그리고 2011년 48억 달러로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는 실정임.
-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
-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음.
- ▶ 첫째,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보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적극적으로 해외건설 보증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여야 함.
- ▶ 둘째, 정책 금융의 확대 방안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이처럼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및 용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해외건설을 위한 보증 및 용자에 대한 자금을 특별히 제공하는 방안과 중소 건설업에 대한 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전체 건설기업 용자 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의 비중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 셋째, 중소 업체의 해외 투자 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 업체에 대한 ‘해외사업금융보험’의 인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사업금융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무역보험공사가 공동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 넷째, 공적개발원조인 KOICA와 EDCF 입찰에 공사 규모별로 건설업체의 규모를 제한하는 입찰제도 등을 도입하여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함.

1. 서론

(1) 연구의 배경

-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중소 건설업체가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으로 인하여 여의치 않는 실정임.
- 해외건설 수주액이 2007년 397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08년 476억 달러, 2009년 398억 달러, 2010년 716억 달러, 그리고 2011년에 591억 달러를 달성하였음.
-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7년 이후 약 400억 달러 이상의 수주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수주한 금액은 2007년 67억 달러, 2008년 72억 달러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09년 55억 달러, 2010년 47억 달러, 2011년 48억 달러로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그림 1-1> 참조).
- 이를 비율로 나타내면 중소기업 수주액은 2007년에 전체 수주액의 16.8%의 비율을 기록하던 것이 2010년에는 6.6%, 2011년에는 8.2%를 기록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해외건설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해외건설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

<그림 1-1> 해외건설 수주 금액 추이



(2)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시 애로 사항

- 해외 건설시장에서 금융이 수주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 동원 능력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 연구¹⁾에 의하면 중소 규모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애로 사항을 설문 조사한 결과 해외시장에 이미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시 애로 사항으로 정부의 금융 및 세제 등의 지원책이 부족한 것을 첫 번째로 꼽았고, 두 번째로 각종 보증서 발급의 어려움을 들었음(<표 1-1> 참조).
- 진출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시장 진출시 애로 사항으로 정보 수집의 어려움을 첫 번째로 들었고, 그 다음으로 보증서 발급의 어려움을 들었음.
- 한편, 공사 수행시 느끼는 애로 사항으로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 프로젝트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해외 경험 기술자 부족을 들었음.
- 반면, 해외 시장 진출 경험이 없는 기업들은 해외 경험 기술자 부족을 가장 많이 들었고, 두 번째로 프로젝트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들었음.
-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모두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 지원책이 부족함을 해외 진출 애로 사항으로 들고 있음.
- 따라서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 건설업체들이 애로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해외건설 보증을 포함한 금융을 중심으로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해외건설협회·연세대학교(2006. 12),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건설교통부 연구 용역.

<표 1-1> 중소 규모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시 애로 사항(설문조사 결과)

순위	기 진출 업체		미 진출 업체	
	진출시	공사 수행시	진출시	공사 수행시
1	정부 차원의 지원책 (금융, 세제 등) 부족	프로젝트 자금 조달	해외 정보 수집	해외 경험 기술자 부족
2	각종 보증 발급	해외 경험 기술자 부족	각종 보증 발급	프로젝트 자금 조달
3	해외 정보 수집	정부 차원의 지원 (금융, 세제 등) 부족	입찰·계약 서류 작성	클레임 처리 능력
4	해외 선진 업체와의 연계 미흡	클레임 처리 능력	정부 차원의 지원 (금융, 세제 등) 부족	기술력 부족
5	입찰·계약 서류 작성	기술력 부족	해외 선진 업체와의 연계 미흡	정부 차원의 지원 (금융, 세제 등) 부족

자료 : 해외건설협회·연세대학교,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2006. 12, p.155.

2.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현황

(1) 중소 해외건설업체 현황

- 해외건설업으로 신고한 중소기업 수는 2012년 1월 27일 기준으로 5,013개사이며, 이 중 현재 해외에 진출한 업체 수는 823개사임.
- 업종별 신고 업체 수는 종합건설업을 포함한 일반건설업체가 1,558개사, 전기업체가 934개사, 정보통신업체가 166개사,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421개사, 수주개발업체가 320개사, 전문건설업체가 1,518개사,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가 19개사임.
- 업종별 진출 업체 수는 종합건설업체 1개사, 일반건설업체가 199개사, 전기업체가 189개사, 정보통신업체가 18개사,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117개사, 수주개발업체가 24개사, 전문건설업체가 258개사,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가 2개사임.

<표 2-1> 중소 해외건설업체 진출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합계	종합 건설	일반 건설	전기	정보 통신	건설 ENG	수주 개발	전문 건설	환경 오염
신고업체	5,013	2	1,558	934	166	421	320	1,518	19
진출업체	823	1	199	189	18	117	24	258	2

주 : 1) 신고 업체는 대표 업종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신고 업종을 반납한 업체는 제외하였음.

2) 업종은 「해외건설촉진법」 [별표 1]에 의한 구분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구분과 상이함.

3) 2012년 1월 27일 기준 자료임.

자료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http://smc.icak.or.kr/>).

(2) 중소기업의 해외 공사 수주 현황

1) 공종별 수주 현황

-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7년 397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08년 476억 달러, 2009년 398억 달러, 2010년 715억 달러, 2011년에 59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이 중 중소 업체들이 수주한 금액은 2007년에 전체 수주액의 16.8%인 67억 달러, 2008년 72억 달러(19.7%), 2009년 55억 달러(11.2%), 2010년 47억 달러(6.6%), 2011년에는 전체 수주액의 8.2%인 4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공종별로 전체 수주액에 대한 중소기업 비율의 특징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산업설비, 건축 및 용역을 제외한 공종에서 중소 업체 비율이 20%를 상회하고 있음.
 -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0~40%대를 유지하던 건축공사가 2011년에는 10.5%로 감소하였음(<표 2-2> 참조).

<표 2-2> 중소기업의 해외 공사 수주 실적 추이(공종별)

(단위 : 천 달러, %)

공종 구분	기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계	중소기업	6,699,867	7,213,925	5,509,952	4,712,472	4,827,326
	전체 기업	39,788,146	47,639,600	49,147,869	71,578,807	59,131,889
	비율	16.8	15.1	11.2	6.6	8.2
토목	중소기업	1,773,017	2,244,770	1,584,838	1,129,813	2,064,074
	전체 기업	5,231,641	9,504,606	6,017,409	4,123,772	5,757,105
	비율	33.9	23.6	26.3	27.4	35.9
건축	중소기업	3,750,463	3,085,804	2,582,142	945,457	833,039
	전체 기업	8,177,373	8,959,588	6,273,315	7,723,656	7,933,042
	비율	45.9	34.4	41.2	12.2	10.5
산업설비	중소기업	694,027	931,835	639,173	1,454,841	1,263,855
	전체 기업	25,267,772	26,873,885	35,421,068	57,285,352	43,205,189
	비율	2.7	3.5	1.8	2.5	2.9
전기	중소기업	275,080	587,133	478,809	471,521	551,154
	전체 기업	689,732	1,335,838	756,073	770,370	1,067,772
	비율	39.9	44.0	63.3	61.2	51.6
통신	중소기업	44,296	25,965	5,008	19,541	27,487
	전체 기업	41,085	18,692	19,567	458,058	61,180
	비율	107.8	138.9	25.6	4.3	44.9
용역	중소기업	162,984	338,418	219,982	691,299	87,717
	전체 기업	380,543	946,991	660,437	1,217,599	1,107,601
	비율	42.8	35.7	33.3	56.8	7.9

주 : 중소기업 수주 통계는 우리나라 기업이 원도급을 받고 다시 우리나라 기업이 하도급을 받는 경우 원도급 수주 금액과 하도급 수주 금액이 모두 합산되므로 중소기업 수주 금액이 전체 기업의 수주 금액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예, 2007년, 2008년 통신의 경우).

자료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및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2) 지역별 수주 현황

- 중소 건설업체의 지역별 해외수주현황을 살펴보면 중동 지역과 아시아 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액은 중동지역은 2010년 7.1%, 2011년 10.5%를 차지하였고, 아시아 지역은 2010년 6.0%, 2008년 7.5%를 차지하였음.

<표 2-3> 중소기업 해외 공사 수주 실적 추이(지역별)

(단위 : 천 달러, %)

구분	기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계	중소기업	6,699,867	7,213,925	5,509,952	4,712,472	4,827,326
	전체 기업	39,788,146	47,639,600	49,147,869	71,578,807	59,131,889
	비율	16.8	15.1	11.2	6.6	8.2
중동	중소기업	4,977,973	3,064,538	3,650,444	3,375,269	3,113,543
	전체 기업	22,800,982	27,204,036	35,746,030	47,249,910	29,540,749
	비율	21.8	11.3	10.2	7.1	10.5
아시아	중소기업	1,304,295	3,715,688	1,470,901	1,090,905	1,449,265
	전체 기업	12,854,654	14,689,165	10,908,980	18,080,978	19,412,883
	비율	10.1	25.3	13.5	6.0	7.5
태평양·북미	중소기업	72,028	16,162	35,707	44,993	10,580
	전체 기업	675,138	609,044	97,323	1,335,654	950,278
	비율	10.7	2.7	36.7	3.4	1.1
유럽	중소기업	58,419	44,473	67,835	13,689	19,526
	전체 기업	1,436,968	1,159,519	469,995	398,085	376,720
	비율	4.1	3.8	14.4	3.4	5.2
아프리카	중소기업	180,471	296,667	232,146	104,728	119,798
	전체 기업	1,687,372	1,501,213	1,208,593	2,447,221	2,207,975
	비율	10.7	19.8	19.2	4.3	5.4
중남미	중소기업	106,681	76,397	52,919	82,888	114,614
	전체 기업	333,032	2,476,623	716,948	2,066,959	6,643,284
	비율	32.0	3.1	7.4	4.0	1.7

주 : 중소기업 수주 통계는 우리나라 기업이 원도급을 받고 다시 우리나라 기업이 하도급을 받는 경우 원도급 수주 금액과 하도급 수주 금액이 모두 합산되므로 중소기업 수주 금액이 전체 기업의 수주 금액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자료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및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3) 소결론

- 최근에 해외건설 수주는 급속히 증가하여 2010년에 716억 달러, 2011년에 59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금액은 2008년 72억 달러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11년 48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전체 기업이 수주한 해외건설 수주 금액은 2007년 이후 약 400억 달러 규모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수주한 금액은 2008년에 72억 달러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후 2009년 55억 달러, 2010년 55억 달러, 2011년 48억 달러로 정체 또는 침체되어 해외건설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해외건설 수주 금액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해외건설을 더욱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중동과 아시아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수주 비중이 5%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신흥 해외 건설시장인 유럽,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 등에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함.

3. 중소기업 해외건설 지원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중소기업에 필요한 해외건설 지원 분야

1) 도급 공사에 필요한 지원 분야

- 첫째,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도급 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사 수행 단계별로 여러 가지 보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보증 지원 정책이 필요함.
- 둘째, 건설업체가 해외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데 필요한 운영 자금이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이 운영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셋째,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 발주자가 해외 국적이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risk)을 회피(hedge)할 수 있는 각종 보험제도가 필요함. 예를 들어, 계약 상대방의 신용 위험 또는 발주국의 비상 위험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는 보험에 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2) 투자 개발사업에 필요한 지원 분야

- 첫째, 해외에서 개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시장개척 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해외시장 개척 자금의 예로는 현지 조사 비용,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 비용 및 본타당성 조사 비용 등이 있음.
- 둘째,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BTO 등 투자 개발형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함. 대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형식으로 제공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셋째, 해외에서 투자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투자 개발사업이 갖고 있는 본래의 사업 위험 이외에도 투자 개발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 존재함. 따라서 이와 같은 위험을 헤지(hedge)할 수 있는 보험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외건설 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해외건설 보증

① 해외건설 보증의 형태

- 해외의 발주자는 대부분 건설 보증으로 신용도가 높은 은행의 지급 보증서를 요구하는데, 일부 발주자는 국내 은행의 보증서를 받기도 하지만 일부 발주자는 현지 은행으로 보증서 발급 기관을 제한함.
 - 중동의 발주자는 현지 은행 또는 세계 20대 은행, 동남아시아 국가의 발주자는 일정 신용 등급 이상의 은행 또는 국내 은행의 현지 지점, 중앙아시아 국가의 발주자는 국내 국책 은행이나 세계 유명 은행의 보증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란, 시리아, 터키, 요르단, 이집트는 법률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보증은 현지 은행으로 국한하고 있음(<표 3-1> 참조).

- 현실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현지 은행 또는 세계 유명 은행에서 자체 신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우므로 국내 은행이 복보증서를 발행하여 백업(back-up)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비해 초대형 건설기업은 자체 신용으로 현지 은행에서 보증 또는 국내 은행 복보증으로 현지 은행에서 직접 보증을 받고 있고, 대형 건설기업은 국내 은행 또는 무역보험공사의 복보증으로 현지 은행에서 보증을 받고 있으며, 중견 기업은 국책 은행의 복보증 후 현지 은행에서 보증을 받고 있음(<표 3-2> 참조).
- 복보증서를 발급하는 국내 은행은 리스크를 배분하기 위하여 건설공제조합,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지급 보증서를 요구하여 보증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경우가 많음(<그림 3-1> 참조).
 - 복보증이란 원보증서를 발행한 은행이 보증 채권자로부터 보증 채무 이행 청구를 받아 대지급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임.

<표 3-1> 지역별 주요 발주자의 건설 보증 요구 현황

구분	중동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보증기관	- 현지 은행 - 세계 20대 은행	-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은행 - 국내 은행 현지 지점	- 국내 국책 은행 - 세계 유명 은행
비고	-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란, 시리아, 터키, 요르단, 이집트는 법률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보증은 현지 은행으로 국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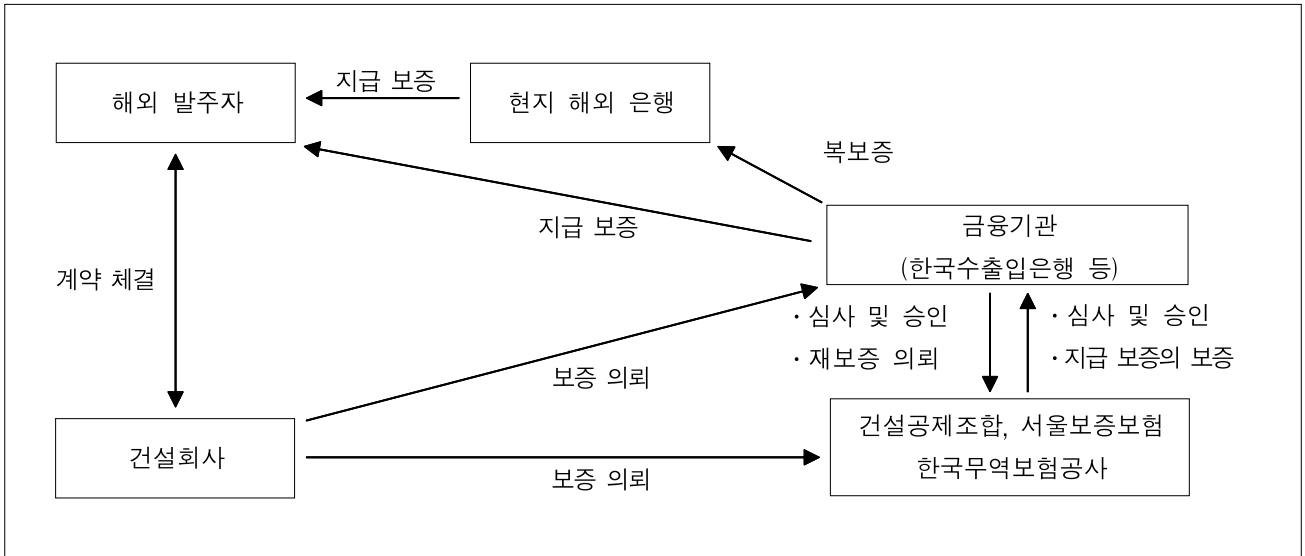
자료 : 건설공제조합 해외 보증 실태 조사(2011. 8).

<표 3-2> 기업 규모별 해외건설 보증 이용 실태

구분	초대형 기업	대형 기업	중견 기업
보증기관	- 현지 은행 직접 보증 - 국내 은행 복보증 후 현지 은행 직접 보증	- 국내 은행 또는 무역보험공사 복보증 후 현지 은행 보증	- 국책 은행의 복보증 후 현지 은행 보증

자료 : 건설공제조합 해외 보증 실태 조사(2011. 8).

<그림 3-1> 해외건설 보증의 형태



② 중소기업 해외건설 보증 수요 추정

-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2008년 72억 달러, 2009년 55억 달러, 2010년 47억 달러, 2011년 48억 달러를 기록했음.
- 보증 수요 금액은 입찰보증의 경우 계약 금액의 5%, 계약이행보증은 계약 금액의 15%, 선금금보증은 계약 금액의 10%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 금액(수주 금액)의 30%를 보증 수요 금액으로 추정하였음.
- 이렇게 추정한 중소기업 해외 건설공사 보증 수요 금액은 2008년에 2조 3,878억원, 2009년에 1조 8,235억원, 2010년에 1조 5,583억원, 그리고 2011년에 1조 5,954억원 규모임(<표 3-3> 참조).

<표 3-3> 중소기업 해외건설 보증 수요 추정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주 실적(억 달러)	72	55	47	48
수주 실적 원화 환산액(억원)	79,572	60,784	51,942	53,179
해외건설 보증 수요(억원) (계약 금액의 30% 가정)	23,878	18,235	15,583	15,954

주 : 환율은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였음.

③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해외 보증 실적

- 건설공제조합은 2007년 1,012억원, 2008년 737억원, 2009년 32억원, 2010년 99억원 규모의 해외건설 보증을 국내 은행(한국외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에 대한 복보증 형태로 취급하였음(<표 3-4> 참조).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07년 452억원, 2008년 1,360억원, 2009년 1,104억원, 2010년 765억원 규모의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하였음(<표 3-5> 참조).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해외 보증 실적은 현재까지는 모두 우리나라 종합건설업체가 원도급을 받은 하도급 공사의 보증 실적임.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현재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복보증으로 해외 원도급 공사의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임.

<표 3-4> 건설공제조합의 해외 보증 실적

(단위 : 건, 억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건수	12	6	1	1
보증 금액	1,012	737	32	99

자료 : 건설공제조합조합 내부 자료.

<표 3-5>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해외 보증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보증 종류	2006	2007	2008	2009	2010
입찰보증	12	2,835	6,333	555	1,953
계약보증	1,853	16,202	64,289	44,638	36,234
하자보증	484	2,599	3,463	10,482	8,616
선급금보증 등	2,513	23,549	61,996	54,697	29,724
합계	4,862	45,185	136,081	110,372	76,527

자료 : 전문건설공제조합조합 내부 자료.

④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보증 실적

-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신용도가 낮아 해외 발주자가 국내 은행의 보증서를 받지 않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이행성 보증'이란 상품으로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하기 시작하였음.
 - 한국수출입은행의 보증 상품은 수출 거래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

에게 차주의 채무 상환을 보증해주는 ‘채무 보증’과 ‘이행성 보증’이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해외건설 보증 실적은 2006년 7,000억원, 2007년 1조 70억원이고, 이 중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2006년에 12억원, 2007년에 476억원(전체 보증의 4.7% 차지) 규모에 머무르고 있음(<표 3-6> 참조).
- 공표된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체 보증 실적(채무 보증과 이행성 보증의 합계)은 2009년 2조 1,456억원, 2010년 1조 4,997억원 규모임(<표 3-7> 참조).

<표 3-6>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 규모별 해외건설 보증 취급 실적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한국수출입은행 보증실적(억원)(A)	8,991	8,844	7,001	10,070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보증실적(억원)(B)	17	39	12	476
중소기업 비중(C=B/A)	0.2%	0.4%	0.2%	4.7%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내부 자료.

⑤ 해외건설 보증의 문제점

- 첫째, 국내 건설에서 건설 보증에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건설공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 보증에 소극적인 점을 들 수 있음.
- 둘째, 정책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보증 취급이 대기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2) 수출 금융 등 정책 금융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는 각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수출 지원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OECD 「수출 신용 협약(The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에 따른 수출 신용은 수출 보조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해외건설을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진흥과 대

의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해 ‘수출 신용 기관’(export credit agency)을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수출 신용 기관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있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진흥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상품과 서비스 수출에 수반되는 보험 업무를 수행함.

① 한국수출입은행

가. 전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실적

-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모든 산업의 중소기업에 지원한 실적은 2009년 17조 7,846억원이며, 2010년에는 16조 1,198억원 규모임.
- 이 중 대출은 2009년에 15조 6,390억원, 보증이 2조 1,456억원이며, 2010년에는 대출이 14조 6,201억원, 보증이 1조 4,997억원 규모임.
 -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은 ‘포괄수출금융’, ‘수출중소기업특례신용대출’ 등 수출 지원 금융과 ‘수입자금대출’ 같은 수입 지원 금융, 해외 투자자금 대출 등이고, 보증은 수출 거래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차주의 채무 상환을 보증해 주는 채무 보증과 국내 수출자의 수주 성사 및 수출 거래 지원을 위한 이행성 보증이 있음.

<표 3-7>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10월 말 현재		
				계획	실적	달성률
대 출	수출 자금	136,899	122,377	108,150	97,524	90.2
	포괄수출금융 등	91,357	98,875	-	69,921	-
	무역어음재할인	45,542	23,502	-	27,603	-
	수입 자금	11,330	11,884	11,010	9,159	83.2
	해외 투자 자금	8,161	11,940	10,840	8,539	78.8
	소계	156,390	146,201	130,000	115,222	88.6
	보증	21,456	14,997	10,000	4,218	42.2
총계		177,846	161,198	140,000	119,440	85.3

자료 :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지원제도 설명회(2011. 11. 21).

나. 해외건설 관련 대출 실적

-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건설과 관련해서 수행한 대출 실적은 2004년에 4,817억원, 2005년 7,730억원, 2006년 8,537억원, 2007년에 1조 97억원임(<표 3-8> 참조).
- 수출입은행이 전체 산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한 금액은 2009년 15조 6,390억원, 2010년 14조 6,201억원 규모임(<표 3-7> 참조).
- 기업 규모별로는 모두 대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이며, 부동산 개발 등 개발 사업이 아닌 도급 공사와 관련한 대출 실적임.
- 2007년까지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게는 대출 실적이 없음.

<표 3-8>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관련 대출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대기업	4,817	7,730	8,537	10,097
중소기업	0	0	0	0
도급공사	4,817	7,730	8,537	10,097
개발사업	0	0	0	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내부 자료.

②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보험과 수입 보험, 즉 무역 보험이라는 정책 금융을 취급하는 수출 신용기관임.
- 수출 보험이란 수출자가 수출을 한 후 또는 금융기관이 수출 금융을 제공한 이후 수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비영리 정책 보험이고,

- 수입 보험은 국내 수입업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적기에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선불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임.
- 이하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 상품 중 해외건설과 관련이 있는 수출보험을 설명하고자 함.

가. 해외건설 관련 정책 보험의 종류

☐ 해외공사보험

- 해외공사보험은 해외공사 계약을 수주한 자가 계약 상대방의 신용 위험 또는 발주국의 비상 위험 발생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인데, 지원 대상 거래는 해외 공사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해외 공사와 관련하여 장비 또는 이에 관한 권리에 발생하는 손실임.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공사보험은 해외건설, 해외엔지니어링 활동 및 장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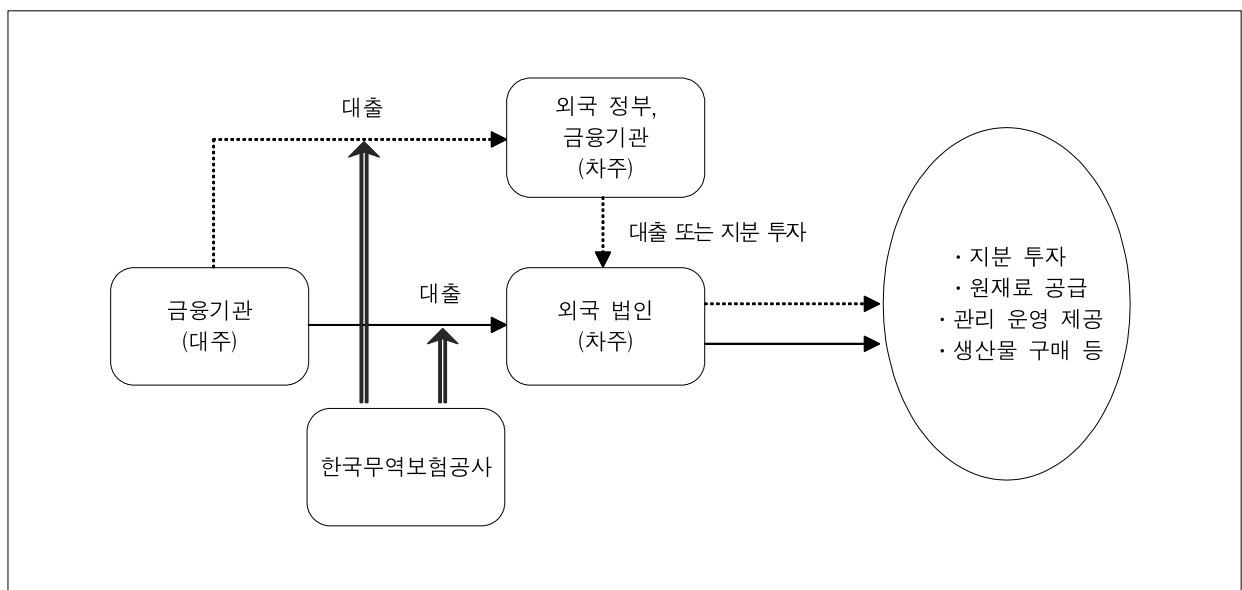
☐ 수출보증보험

- 플랜트 수출 또는 해외 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보증서(bid bond, advance payment bond, performance bond, retention bond, warranty bond 등)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이 보증서 발급 후 수입자 또는 발주처로부터 보증 채무의 이행 청구를 받게 되어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임.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은 해외건설 보증의 보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의 복보증으로 이용되고 있음.

□ 해외사업금융보험

- ‘해외사업금융보험’이란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정부, 공공 단체 및 외국 법인, 관련 금융기관)에게 수출 증진이나 외화 가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 기간 2년 초과 조건으로 공여하는 금융 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 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임.
- ‘해외사업금융보험’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투자 개발형 사업 등 해외사업에 대한 비상 위험과 신용 위험에 대한 보험의 필요성에 의하여 2007년 도입되었음.
 -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해외 사업의 형태는 해외 사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에 대한 지분 참여, 해외사업 관련 운영 및 관리 계약(Operation & Management), 해외사업 관련 원재료 공급 계약, 해외사업 관련 생산물 구매 계약 등이 있음.
 - ‘해외사업금융보험’의 대상이 되는 해외 사업으로는 ① 해외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의 지분 취득 계약, ② 해외사업 관련 원재료 공급 계약, ③ 해외사업 관련 생산물 구매 계약, ④ 해외사업 운영 및 관리 계약 및 ⑤ 기타 수출 증진이나 외화 획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 관련 계약임(<그림 3-2> 참조).

<그림 3-2> ‘해외사업금융보험’의 구조



나. 해외건설 관련 정책 보험의 기업 규모별 실적

-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신용 위험 또는 발주국의 비상 위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해외공사보험’의 실적은 2010년 1조 7,162억원 규모인데 모두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실적임.
- 해외건설의 복보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출보증보험’의 실적은 2010년 4조 6,470억원 규모이고, 이 중 중소기업 실적은 13.2%인 6,155억원 규모임.
- 건설기업이 투자 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해외사업금융보험’은 2009년 2조 8,907억원 규모에 이르렀다가 2010년 2조 3,168억원, 2011년에는 8,142억원 규모임(<표 3-9> 참조).
 - ‘해외사업금융보험’이 건설기업의 투자 개발형 사업을 지원한 경우는 미미한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음.

<표 3-9>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건설 관련 보험 인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해외공사 보험	대기업	872,984 (100.00%)	2,159,023 (100.00%)	195,785 (100.00%)	1,716,230 (100.00%)	1,052,855 (100.00%)
	중소기업	-	-	-	-	-
	합계	872,984	2,159,023	195,785	1,716,230	1,052,855
수출보증 보험	대기업	1,119,034 (64.52%)	3,772,430 (85.61%)	5,187,301 (89.26%)	4,031,503 (86.76%)	3,762,354 (85.78%)
	중소기업	615,324 (35.48%)	634,155 (14.39%)	624,039 (10.74%)	615,493 (13.24%)	623,840 (14.22%)
	합계	1,734,358	4,406,585	5,811,340	4,646,996	4,386,194
해외사업 금융보험	대기업		157,180 (11.15%)		2,316,829 (91.40%)	814,227 (74.38%)
	중소기업	218,956 (100.00%)	1,252,793 (88.85%)	2,890,748 (100.00%)	218,036 (8.60%)	280,501 (25.62%)
	합계	218,956	1,409,973	2,890,748	2,534,865	1,094,728

주 : 2011년 자료는 당해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의 수치임.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내부 자료.

③ 수출 금융 등 정책 금융의 문제점

- 해외건설과 관련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정책 금융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금융 지원이 대기업에 치중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임.
 - 예를 들어,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업에 대한 융자 금액은 2007년 1조 67억원 규모인 반면, 중소기업의 해외건설에 대한 융자 실적은 전무함.
 -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공사보험의 실적도 모두 대기업 대상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실적은 전무한 상태임.
- 건설기업이 투자 개발형 해외사업에 진출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사업금융보험’이 건설기업의 투자 개발형 사업을 지원한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3)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 우리나라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중 무상 원조인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이 전담 실시하고 있음.
- 원조 수혜국이 상환 의무를 갖고 있는 유상자금협력인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

① KOICA 지원 사업

가. KOICA 사업의 유형

- KOICA 사업의 유형은 개발 조사 사업, 프로젝트 사업, 연수생 초청, 봉사단 파견, 물자 지원, 전문가 파견 등 다양한데 건설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개발조사 사업과 프로젝트사업임.

- 개발 조사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 및 기초 인프라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F/S), 마스터플랜(M/P)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제공 등 각종 기술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임.
- 프로젝트 사업은 교육·훈련, 보건·의료, IT 분야 지원 등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물적 협력 수단과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등 인적 협력 수단을 결합하여 다년간 지원하는 사업임.
- KOICA 지원 사업은 정부의 무상 원조 사업이므로 발주자가 수원국 정부가 아닌 KOICA이고 순수 도급 사업이므로 사업 수행에 따른 리스크가 거의 없음.

나. KOICA 지원 실적

- KOICA 지원 실적은 2010년도 기준으로 5,247억원인데, 이 중 프로젝트 사업이 3,337억원(63.3%)으로 가장 비율이 높고, 개발 조사 사업이 159억원(3.0%) 규모임 (<표 3-10> 참조).

<표 3-10> 사업 유형별 KOICA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천 달러)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원화 (₩)	미화 (\$)	비율 (%)	원화 (₩)	미화 (\$)	비율 (%)	원화 (₩)	미화 (\$)	비율 (%)	원화 (₩)	미화 (\$)	비율 (%)
총 합계	251,086	270,217	100	305,541	275,238	100	355,747	279,258	100	524,731	454,154	100
프로젝트	106,599	114,721	42.46	129,015	116,220	42.2	178,758	140,324	50.2	333,701	288,819	63.6
개발 조사	7,924	8,528	3.16	13,549	12,205	4.4	8,749	6,868	2.5	15,858	13,725	3.0
연수생 초청	25,279	27,205	10.07	32,822	29,566	10.7	30,338	23,815	8.5	36,636	31,709	7.0
봉사단 파견	37,894	40,781	15.09	46,173	41,594	15.1	55,482	43,552	15.6	63,189	54,690	12.0
물자 지원	37,804	40,685	15.06	36,735	33,092	12.0	6,757	5,304	1.9	674	583	0.1
NGO	5,275	5,677	2.1	7,201	6,487	2.4	6,957	5,461	2.0	9,100	7,876	1.7
전문가 파견	3,495	3,761	1.4	2,602	2,344	0.9	300	235	0.1	1,817	1,573	0.3
긴급 원조	4,515	4,858	1.8	11,798	10,628	3.9	7,497	7,455	2.7	11,497	9,951	2.2
개발 인식 제고	3,830	4,122	1.53	4,234	3,814	1.4	6,509	5,109	1.8	5,072	4,389	1.0
행정비	18,471	19,879	7.36	21,411	19,288	7.0	23,160	18,180	6.5	25,740	22,278	4.9
국제기구 협력 사업	-	-	0.0	-	-	0.0	29,240	22,953	8.2	21,446	18,561	4.1

- KOICA 지원 실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0년도의 경우 환경 및 기타 분야가 1,568억원으로 가장 비율이 높고(29.9%), 보건 의료(898억원, 17.1%), 교육 분야(748억, 14.3%) 순임(<표 3-11> 참조).

<표 3-11> 분야별 KOICA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천 달러)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원화 (₩)	미화 (\$)	비율 (%)	원화 (₩)	미화 (\$)	비율 (%)	원화 (₩)	미화 (\$)	비율 (%)	원화 (₩)	미화 (\$)	비율 (%)
총 합계	251,086	270,217	100	305,541	275,237	100	355,746	279,258	100	524,731	454,154	100
교육	41,006	44,130	16.33	43,189	38,905	14.1	56,710	44,517	15.9	74,824	64,760	14.3
보건 의료	42,527	45,768	16.94	60,536	54,532	19.8	82,023	64,387	23.1	89,858	77,772	17.1
정보 통신	27,639	29,744	11.01	37,939	34,177	12.4	44,844	35,202	12.6	41,161	35,625	7.8
산업 에너지	30,325	32,636	12.08	31,550	28,420	10.3	24,367	19,128	6.8	32,305	27,960	6.2
행정 제도	47,262	50,863	18.82	43,612	39,286	14.3	38,215	29,998	10.7	32,313	27,967	6.2
지역 개발	15,083	16,232	6.01	26,924	24,254	8.8	34,616	27,174	9.7	46,263	40,041	8.8
환경 및 기타	38,807	41,764	15.46	22,256	20,048	7.3	32,136	25,227	9.0	156,795	135,706	29.9
긴급 구호	8,437	9,080	3.36	13,890	12,513	4.6	13,166	10,335	3.7	20,400	17,656	3.9
미분류				25,645	23,102	8.4	29,669	23,290	8.3	30,812	26,667	5.9

② EDCF 지원 사업

- 유상자금협력인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
- EDCF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유상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발주자는 수혜국 정부가 됨.
- 2010년 EDCF 자금의 승인 현황을 보면 개발사업 차관이 1조 2,014억원, 그리고 기자재 차관이 462억원으로 합계는 1조 2,476억원임.
- 그러나, 집행 실적은 2010년 개발사업 차관 2,952억원, 기자재 차관 1,155억원 등 합계 4,107억원임.
- 최근 EDCF 승인 실적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데 비하여 집행 실적은 완만한 증

가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EDCF 승인 실적이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 필요한 계획, 설계 등에 2~3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임.

<표 3-12> EDCF 차관 종류별 승인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개발사업 차관		기자재 차관		합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2006	360,915	15	29,877	1	390,792	16
2007	575,202	16	67,521	3	642,723	19
2008	874,877	19	187,723	8	1,062,600	27
2009	1,165,189	22	70,626	9	1,235,815	31
2010	1,201,409	21	46,182	2	1,247,591	2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통계.

<표 3-13> EDCF 차관 종류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개발사업 차관	기자재 차관	합계
2006	87,434	48,644	136,079
2007	136,312	19,024	155,335
2008	207,273	29,863	237,136
2009	261,356	51,458	312,814
2010	295,180	115,518	410,69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통계.

③ 해외건설 관점에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문제점

- 이상에서 살펴본 해외 원조 자금인 KOICA 자금과 EDCF 자금은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므로 이와 같은 원조 자금도 우리나라의 정책 목표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조 자금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발주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현재 KOICA나 EDCF 자금 모두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4.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1) 중소기업 해외건설 보증 확대 방안

1)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해외건설 보증 적극 참여

① 건설공제조합 해외 보증 현황

-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건설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적극적으로 해외건설 보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한편, 현재 정부가 일부 자금을 투입하여 ‘해외건설 전담 금융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새로운 ‘해외건설 전담 금융 기구’를 설립하기보다는 국내의 건설공사에 충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좋은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됨.
 - 새로운 해외건설 전담 금융 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과 보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이 필요하나 이의 충원을 위해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②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자격 부여

-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1항 제2호).
-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취급 업무가 허용되어 있지 않아 직접 해외 발주자나 해외 현지 은행을 상대로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할 수 없음.

- 현행 제도에서 복보증 형태로 해외건설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나 보증 비용을 인하시키기 위해서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직접 해외 발주자나 현지 은행을 상대로 보증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함.
-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해외건설 보증을 직접 취급하기 위해서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외국환거래법」 상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여야 함.
- 따라서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포함되어야 함(「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표 4-1>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7조(금융회사 등) 법 제3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신설>	제7조(금융회사 등) ----- -----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조합
제14조(외국환 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 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 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신설>	제14조 (외국환 업무의 취급 범위)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조합 : 다음 각목의 외국환 업무 가. 거주자와의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보증 나. 비거주자와의 보증
4. (생략)	4. (현행과 같음)

2)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확대 방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전체 해외건설 보증 실적은 2004년에 8,991억원, 2007년에 1조

70억원 규모이었음. 이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실적은 2004년에 17억원(전체 보증 실적의 0.2%), 2007년에 476억원(전체 보증 실적의 4.7%) 규모에 머무르고 있음.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의 경우 2010년 4조 315억원 실적 중 중소기업에 대한 실적은 14.2%인 6,238억원 규모임.

-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것임.
-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한국수출입은행이 평가한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낮아 한국수출입은행의 보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임.
- 따라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보증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비율을 제고하는 방안이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현재보다 세밀한 신용 평가를 하고, 보증 대상 공사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세밀한 타당성 조사를 하면 보증 요건 완화에 대한 보증 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임.
- 둘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지원을 위한 자금을 특별히 제공하는 방안이 있음.
- 새로운 ‘해외건설 전담 금융 기구’를 설립하기보다는 이미 해외에 신용도가 있는 수출입은행에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좋은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됨.

(2) 수출 금융 등 정책 금융 개선 방안

1) 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 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 내부 자료(<표 3-8>)에 의하면 2007년까지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관련 대출 실적은 전무한 상황임.
-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용자를 위한 자금을 특별히 제공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 요건을 완화하여 전체 건설기업 용자 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용자 금액의 비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신용평가제도를 구축하고,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세밀한 타당성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면 용자 요건 완화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임.

2)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확대

① ‘해외사업금융보험’ 인수 확대

-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비상 위험 또는 신용 위험을 담보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으로 ‘해외사업금융보험’이 있음.
- 중소기업체의 해외 투자 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체에 대한 ‘해외사업금융보험’의 인수를 확대하여야 함.
- ‘해외사업금융보험’의 보험 계약자는 해외사업 소요 자금을 공여하는 금융기관이므

로 자금 공여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3) 공적개발 원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1) 대외 무상원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 KOICA에서 발주하는 대외 무상원조 사업의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물자 조달, 기술 용역, 인프라 건축으로 나눌 수 있음.²⁾
 - ‘물자 조달’이라 함은 수원국에 지원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제조·포장·운송·하역·보관·보험 등 조달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말함.
 - ‘기술 용역’이라 함은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물자 조달, 타당성 조사, 각종 설계·개발 방안 및 정책 개발 등의 형태로 수원국에 제공하는 기술 자문 및 관련 사업의 수행을 말함.
 - ‘인프라 건축’이라 함은 병원, 학교, 주택, 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일체의 사업 수행을 말함.
- KOICA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종류는 크게 국제 입찰, 국내 입찰, 현지 입찰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국제 입찰과 국내 입찰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입찰이 이루어지고 현지 입찰은 현지 사무소나 재외 공관을 통해 입찰이 시행됨.
- 국내 입찰의 경우 경쟁입찰,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이 있고, 경쟁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및 제한경쟁입찰이 있음.
-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KOICA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공사 규모별로 건설업체의 규모를 제한하는 제한입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2) 이와 같은 규정은 국제협력단(KOICA), 「대외무상협력 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 규정」에 규정되어 있음. 국제협력단(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참조.

- 공사 규모별로 건설업체의 규모를 제한하는 입찰제도는 건설업체 규모별로 수주할 수 있는 공사의 규모를 배분함으로써 대기업이 기업의 규모에 걸맞지 않는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방지하여 중소기업이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중소기업 우대 방법임.

2) EDCF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 방안

- EDCF의 구매 방식은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국제경쟁구매, 직접계약방식 등이 있으며, EDCF의 구매 원칙은 경쟁입찰을 존중해 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³⁾
- EDCF 사업의 시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관사는 수원국이며, 수출입은행은 단지 EDCF 차관으로 지원되는 부문에 대하여 입찰 전 과정에 있어 승인의 기능만을 함.
- 현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인 소액차관제도는 소규모 EDCF 차관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EDCF 지원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 8월에 도입되었음.
- 차관 규모가 200만 SDR(약 300만 달러) 미만인 소액 차관사업은 사업 참여자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 신청, 심사, 구매 등 제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행하고 있고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소액 차관의 한도는 총 사업 비용의 100%까지이며(단, 200만 SDR 미만), 이자율은 연 0.1% 이내임.
- 구매 방법은 대한민국 적격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 방식 중 차주와 협의하여 결정함.
 - 적격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관련 사업 납품 실적 또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 감사 대상 또는 자산 총액 50억원 이상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함. 유망 분야는 소형 플랜트, 교육, 의료, IT, 환경설비 등임.

3) 유상 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구매 방식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www.edcfkorea.go.kr) 참조.

- 위에서 언급한 소액 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수원국 정부가 공사 규모별로 건설업체의 규모를 제한하는 입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함.

이의섭(연구위원 · eslee@cerik.re.kr)